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5. 6. 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4.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후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0장 1~7절

다 같이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 그의 아내 사 را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 را를 데려갔더니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말씀 나눔 ----- 선지자의 실수 ----- 인 도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성도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불려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택함 받은 성도는 현재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에도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된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열심으로 지켜야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나 본문에서는 지상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 결과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נָבִיא, 나비)로 불리워 졌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부글부글 끓다'(נָבִיא, 나비)란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쉬지 않고 '예언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선지자는 대언자적 임무를 수행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비멜렉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1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그의 아내 사 را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 را를 데려갔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 را를 데려갔으므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타인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신과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시자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시는 그런 분이시냐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본문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우리의 실수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우스꽝스러운 믿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냐”

이 “어찌하여”란 말은 ‘무엇’, ‘언제’, ‘어떻게’ 등의 뜻을 갖는 의문사인 동시에 ‘얼마나’로 번역될 수 있는 감탄사로서 상당히 복합적인 뜻을 갖습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기와 자신의 나라를 위태롭게 한 아브라함에게 대해 울분 섞인 감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어처구니없이 보았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과 우리의 권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람을 살리고 선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 다 같이

1.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는지 나눠주세요.
2. 내가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내 행동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주었던 적은 없었는지 나누주세요.
3.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나 부족함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2.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 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3.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4.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5. 한국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해 주님의 법을 잊고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타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